

SK 오승훈 박사, 2월 과학자상 선정

과기부, 트랜스알킬화 촉매로 국내기술 확보 ... 기술 판매액만 100억원

SK R&D센터 오승훈(43) 박사가 과학기술부와 한국과학재단이 선정하는 <이달의 과학기술자상> 2월 수상자로 선정됐다.

한국과학재단(KOSEF) 2월4일 오승훈 박사가 대규모의 석유화학 공정에 사용되는 <트랜스알킬화 촉매(ATA-11)>를 개발해 상용화함으로써 외국에 의존하던 국내 촉매 기술 자립화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됐다고 선정 경위를 소개했다.



오승훈 박사

대규모 석유화학 공장의 운전 경제성은 핵심기술인 촉매의 성능에 의해 좌우되지만 국내에서는 그동안 전량 기술도입에 의존해 왔다.

오승훈 박사는 SK 연구소에 15년간 근무하면서 국내에서는 볼모지나 다름없는 석유화학 분야의 촉매 및 공정개발 분야에서 여러 건의 촉매·공정 신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성공시킨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트랜스알킬화 촉매(ATA-11) 기술은 공장의 생산성을 2배 이상 향상시켜 한 해 100억원 이상의 이익을 올렸으며, 공장 가동률도 100%로 끌어올렸다.

2002년에는 UOP, ExxonMobil 등 메이저 화학기업들을 제치고 타이완에 기술판매(Licensing-Out)를 통한 촉매 기술을 수출했고 최근에는 인디아에 대한 기술판매에 성공한 데 이어 중국, 미국, 동남아시아 등의 대형 석유화학기업과 판매협상이 이루어지고 있어 2004년까지 기술판매 수입만 100억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SK는 오승훈 박사팀의 기술개발로 Aromatic 화합물을 다루는 촉매 기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보유하게 됐으며, 이어 Reformat Up-grading 촉매 및 공정, 자일렌 이성화 촉매 등의 상용화에도 성공했다.

오승훈 박사는 촉매기술 개발 외에 석유화학 공장의 각종 트러블 해결, 생산성 향상 연구 등 석유화학 및 정밀화학 연구과제 책임자로 활발히 활동하고 있으며, 한국화학공학회, 한국제올라이트학회 등에도 참여하고 있다. <조인경 기자>

<Chemical Journal 2004/02/05>